

험지(險地)라고 쓰고 혐지(嫌地)로 읽는다?

세상읽기

최충명

상담학박사·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원장



올해 추석을 전후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거취와 관련하여 여의도가 시끄러웠다. 그것이 총선 열기와 맞물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앞선 이재명 대표의 거취문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계와 친명계로 아주 명확히 나뉘어 불리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또한 동시에 국민의힘당에서는 친윤계와 반/비윤계 이른바 용산파(윤핵관)와 아년파 등으로 나뉘어 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참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아닌가 싶다. 물론 그들은 언론 탓을 하겠지만...

인간은 구조상 내편과 너희 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편과 적으로 간주되는 내편이 아닌 편으로 바깥세상을 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내편-너편' 논쟁은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만약, 이것이 정치인의 뇌 구조라면(세상을 인식하는 구조라면) 인지 구조상 한없이 하수(下手)라고 할 수 있겠다. 나라를 운영할 권리를 일부 위임 해주었고, 국민을 대표하여 의사결정을 대신 할 수 있도록 일정 권력을 위임 받은 정치인들이 1차원적인 인지구조로

세상을 바라보고 갈라치기만 할 수 있다면 2차원 3차원적인 메타인지구조가 필요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그 사람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많은 단서들이 있다. 그런데 작금의 여의도 정치인들과 대통령은 매일매일 '갈라치기, 이념논쟁'만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내년 4월 총선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는데, 이 갈라치기 논쟁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상황이 매일 뉴스에서 중계되고 있다. 이른바 잘못된 사람은 나가라는 식의 탈당 및 신당 창당 논쟁과 당 지도부가 혐지로 나가라, 아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혐지로 나가서 심판을 받아라는 혐지출마-혐지출마 논쟁이 그것이다. 탈당-신당 창당은 '자기들만의 리그'이니까 그렇다 치자. 혐지-혐지출마 논쟁은 볼 때마다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국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정치인 누군가에게는 혐지이자 혐지라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출마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요즘 세대 말로 '참교육'과 '헬(hell)'을 경험하라는 것인가? 그럼 투표하는 지역주민인 나는 별주는 사람인가?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당당하게 연일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다. 한때 저 정치인들은 모두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좋은 학벌, 좋은 집안에서 자랐으며 심지어 80년대 민주화 운동에서 수뇌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나라 정치는 아무리 능력 값이 좋은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어떤 연유에서인지 1차원적으로 변해버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혹은 선거 결과란 '잘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인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보려고 애썼는지, 그것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그 방법이 적절했는지'를 '평가받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고 결과를 확인할 때 늘 하는 말이 있다. '너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올 것이다. 결과는 절대 거짓이 없다.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드려야 하며, 부족한 부분에 실망하지 말고 그 부분을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더 많이, 더 중요하게 하는 말은 바로 '시험 과정에 충실해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정치인들과 이번 총선에서 혐지, 혐지를 논하고 있는 출마자들에게 묻고 싶다. 그저 당선만 되고 내정지만 잘되면 된다는 심보를 가졌는지, 아니면 출제자인 국민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과정을 충실하게 걸어갔는지. 내가 유리하면 내 탓, 내 소중함 지역구이고 내가 불리하면 혐지 혐지인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아닐까?

社說

AI,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확산 막아야

고흥 오리농장서 항원 확인

고흥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소요된다고 한다. 올 들어 국내 야생조류에서는 저병원성 AI가 순천만 2건 등 모두 28건이 검출됐고 일본의 야생조류에서는 고병원성 AI가 15건 누적 검출됐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민·관의 물샴 틈 없는 방역이 필요한 때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다행히 반경 10km 이내에는 가금농장이 없다고 한다. 중수본은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서도 5일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해야 한다.

고병원성 AI는 치사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11개 시·도에 75건이 발생해 66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에서는 9개 시·군에서 30건이 발생해 28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특히 AI 바이러스는 축사내 먼지나 분변에서 5주간 생존할 수 있고, 감염된 가금류의 호흡기나 분변에서 대량 방출돼 인근 농장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매개체도 차량, 사람, 장비 등부터 야생철새까지 다양하다. 선제적 방역이 최상의 예방인 셈이다.

전남도를 비롯한 방역당국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농장에서 예방활동도 중요하다.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내 야생동물의 이동도 차단해야 한다. 축사내·외부를 매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에게 AI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부담을 나누려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AI를 극복하는 길이다.

문화가꾸는 금호그룹 '메세나' 응원한다

경영위기 속 영재발굴 결심

'영재는 기르고, 문화는 가꾸고'. 1977년 11월 29일 출범한 금호문화재단의 설립 취지다. 금호문화재단은 1998년부터 클래식·미술 분야의 영재발굴에 앞장서 왔다. 금호문화재단을 설립한 고(故)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의 메세나(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정신은 그룹의 확고한 철학이 됐다. 고인에 이어 박삼구 전 회장, 박세창 부회장 역시 지금까지 그 뜻을 이어 받고 있다.

금호문화재단은 매년 두차례 금호영재콘서트,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오디션 등을 통해 '금호영재'를 발굴하고 있다. 선발된 연주자들은 금호아트홀에서 연주할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고가의 악기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악기은행제도를 통해 피아니스트 손열음·권혁주, 클라라 주미 강 등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을 탄생시켰다. 지난 3일(현지시간)에는 폴란드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금호영재' 출신인 첼리스트 박상혁이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크시슈토프 펜

데레츠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다. 박상혁은 이번 콩쿠르에서 본선에 진출한 42명 중 가장 돋보였다고 한다. 금호그룹의 메세나는 연고지인 광주에서도 실천하고 있다. 금호그룹은 지난 2009년 유스퀘어 문화관 개관 이후 2010년부터 금호주니어콘서트를 통해 광주, 전남·북 출신 영재발굴에 나섰다. 올해 현재 183명의 연주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유망주다. 이미 금호주니어콘서트 출신 피아니스트 최현호(베를린 국제 음악 콩쿠르 1위 없는 2위), 김민준(리우 콩쿠르 2위)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금호그룹은 유동성 악화와 심각한 경영 위기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을 매각하며 사실상 과거의 명성을 잃은 지 오래다. 유스퀘어 문화관을 운영중인 금호고속 역시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로 심각한 적자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금호그룹의 메세나 활동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문화도시' 광주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금호그룹의 기업정신이 지속되길 기원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3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8회 산타달리기(산타런) 행사가 열려 산타 복장의 한 참가자가 삼륜 오토바이를 몰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산타복장의 참가자 약 2000명이 참가했다. 부다페스트=신화/뉴스시

서석대



프로야구 '스토브리그'가 한창 진행 중이다. 스토브리그란 프로야구에서 시즌오프(season-off) 시기인 겨울철에 각 구단이 팀의 강화를 위해 선수의 획득이나 이동을 둘러싸고 활발한 움직임을 갖는 스카우트 열전, 팀과 선수들의 연봉 협상을 말한다. 시즌이 끝난 후 팬들이 난로(stove) 주변에 둘러앉아 선수들의 계약 갱신이나 연봉 협상, 트레이드(trade) 등에 관하여 평판을 한다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올해는 다이내믹한 스토브리그가 펼쳐지고 있다. 프로무대에서 크고 작은 족적을 남긴 굵직한 선수들이 4년 만에 부활된 KBO(한국야구위원회)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팀을 옮겼다.

2021시즌을 앞두고 4년 총액 42억 원의 조건에 SSG 랜더스 유니폼을 입었던 내야수 최주환은 키움 히어로즈의 지명을 받았다. 삼성 라이온즈 불펜의 핵심이었던 사이드암 우규민은 KT위즈로, SSG랜더스의 23년 '원클럽맨' 김강민은 한화 이글스로 각각 이적하게 됐다.

특히 SSG는 김강민의 한화회화 여파로 김성용 단장이 좌천되는 등 다사다난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다.

자유계약(FA)시장도 뜨겁다. 초대형 FA 선수는 없지만 준계약 FA인 롯데 전준우와 두산 양석환이 기존 팀에

잔류했고 롯데 안치홍은 한화, KT 김재윤은 삼성으로 이적하며 스토브리그를 달궜다.

올해 스토브리그가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KIA타이거즈는 조용하다. 내부 FA인 고종욱을 잔류시키고 또 다른 내부 FA 김선빈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전력 보강 소식이 없다.

올시즌 6위로 마친 KIA가 외부 전력 보강에 적극적인 이유는 큰 비용을 들여 영입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진다. KIA는 올시즌 5위 이상의 성적을 노렸지만 외국인 투수들의 기대 이하의 활약과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6위에 그쳤다.

KIA 타선은 올해 LG(0.279)에 이어 0.276으로 2위에 오를 만큼 강했다. 나성범, 김도영, 박찬호 등의 주전들의 줄부상만 아니었다면 우승 경쟁을 할만한 전력이었다. 문제는 외국인 투수다. 외국인 투수들이 1, 2선발로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 게 성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KIA는 수준급의 외국인 투수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스토브리그에서 뚜렷한 전력 보강을 하지 못한 KIA가 내년 시즌 강력한 원투펀치를 이룰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동환 취재2부 문화체육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36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